

크레이그 키너 박사, 마태복음, 강의 15, 마태복음 19-22

©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마태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15회, 마태복음 19-22장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복음에서 제자도, 즉 제자도의 요구에 대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글쎄요,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가르침을 원하는 사람에게 그가 연설할 때 이들 중 일부가 이제 머리에 떠오릅니다. 우리는 19장 16절부터 22절에서 제자도의 대가에 대해 읽습니다. 영생을 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마태는 이 점에 대해 마가를 명확히 설명합니다. 누군가가 마가가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텍스트를 읽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는 단어를 명확히 함으로써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본문을 읽을 수 없도록 확실히 합니다. 우리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서 그들의 믿음에 장애물을 만드시고 그들이 그 장애물을 극복하시는 끈질긴 구도자들의 숫자를 봅니다. 가나안 여인의 경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마태복음 8장의 이방인 백부장의 경우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비록 20장에서 그 장애물을 일으킨 사람은 예수님이 아니었지만 아마도 소경들에게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끈질기게 구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장애물로 인해 스스로를 제지하도록 허용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그것이 필요한 것이라면 그건 너무나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가는 그 사람이 떠나자 예수께서 슬퍼하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기준을 낮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결심을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21절과 22절에서 제자들에게 절대적인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친숙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문화, 특히 그리스 문화에서 비슷한 기술을 사용한 일부 급진적인 교사들에게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디오게네스를 쫓아내려고 거듭 노력했던 안티스테네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디오게네스는 계속해서 그의 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냉소주의자들의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이것을 자신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교육적 기법으로 채택하여, 그들에게 모든 것을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정말로 끈질긴 사람만이 제자가 되도록 하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과거 몇 년 동안 지금처럼 바쁘지 않았을 때에도 바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멘토링을 요청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리고 저는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를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나는 "좋아, 조깅하러 갈 거야"라고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조깅하러 오시면 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나와 함께 조깅하러 오곤 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초기 스토아 철학자 중 한 사람인 제노(Zeno)는 부유한 청년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는 내가 당신의 지위에 감동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 교만해서 자신을 낮추지 못할 경우에는 대부분이 그랬듯이 떠나갔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자신을 따르려는 크라테스에게 돈을 모두 바다에 던져 버리라고 말했습니다. 크레이트는 그렇게 했고 그의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릴 준비가 되어 있는 한 그들을 환영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자원에 대해 너무 많은 신뢰와 사랑을 갖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것을 요구 사항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디트리히 본회퍼(Dietrich Bonhoeffer)가 지적했듯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우리 자신의 삶에 어떤 요구를 하는지 알아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의 큰 필요를 고려할 때,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삶의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우리의 자원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가족이 있는 경우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때로는 가족 중 일부, 특히 배우자나 부모 등의 가치관을 바탕으로 일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선택할 수 있는 한, 예수님은 희생과 보상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내어주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23절과 24절에서 권세 있는 자는 결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경고하십니다. 그것은 큰 동물,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바늘귀는 단순히 낙타가 몸을 굽히면 통과할 수 있다는 예루살렘의 한 문 이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불행히도 그것은 단지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예루살렘에는 오늘날 일부 여행 가이드가 그 문으로 식별할 수 있는 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시대보다 훨씬 뒤인 중세 시대에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늘귀는 고대 문헌을 읽어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주 작은 것, 아주 작은 것의 형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코끼리나 낙타가 통과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부자들이 예수를 따른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이에 대한 몇 가지 예를 가지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산헤드린 의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도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예수께서 죽으신 후에 제자로 나왔지만 그분이 장사될 무덤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그렇게 하는 데 어떤 위험이 있었는지 염두에 두십시오. 요셉은 반역죄로 처형된 사람과 공개적으로 자신을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의 자원뿐 아니라 생명까지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리마대 요셉 이야기를 들으면 더 자세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있었어요. 바늘구멍을 통과한 일부 낙타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희생을 치러야 했습니다.

글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는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라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따랐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님은 그들이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최우선에 두었기 때문에 왕국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25절부터 30절까지 자기를 따르는 자에게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30절에서는 꼴찌가 첫째요, 첫째가 꼴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방인 압제자 등보다 높이실 것이라는 일반적인 유대인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낮은 자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이사야 2장과 다른 곳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약성서에 여러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다른 곳의 예수의 가르침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포함사항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세요.

인클루시오는 동일한 음표에서 시작하고 끝나는 곳이므로 그 사이의 모든 것을 괄호로 묶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19장 30절에서 그들의 미래주의적 승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0장 16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 사이에 예수님은 천국이 일꾼을 고용하는 집주인과 같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많은 유대인 비유에는 땅 주인이 등장합니다.

그러한 유대인 비유에 나오는 땅 주인은 대개 하느님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추수하는 동안, 음, 추수하는 동안에는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평소보다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는 나가서 아침 일찍 일꾼들을 고용했고 그들은 그와 동의하여 한 데나리온, 곧 하루 품삯을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글쎄요, 그에게는 일꾼이 더 필요할 거예요. 그는 일꾼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는 더 많은 일꾼을 찾으러 가서 그들에게 공정한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일이 필요합니다. 그들이 더 일찍 그곳에 있지 않았던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자신의 분야나 다른 사람의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이제 그들은 해야 할 일을 마쳤습니다.

이제 그는 가서 그들을 고용하고 계속해서 돌아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고용합니다. 그리고 오후 5시부터 6시까지만 일한 사람도 있었는데, 한 시간만 일했어요. 그리고 그는 먼저 그들에게서 시작하여 그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하루 품삯을 줍니다. 그리고 그가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에게 가면, 그가 그들에게 후대를 베풀었으니 우리가 그 날 품삯보다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더욱 관대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지 그들이 동의한 것을 얻을 뿐입니다. 그들도 하루치 월급을 받습니다. 요점은 은혜가 공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더 많이 일한 사람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합의한 것을 얻었지만 다른 사람이 관대함을 받았기 때문에 질투했습니다. 그들은 적게 일한 사람이 더 많은 급여를 받는 것을 질투했습니다.

그리고 집주인은 15절에서 그들에게 “너희가 질투하느냐?”고 지적합니다. 나는 관대하기 때문에. 관대해서 좋은 일이었죠, 그렇죠? 은혜는 공평하지 않지만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얻게 된다면 우리 모두는 멸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제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좋아합니다.

마지막에 누군가가 하나님께 나아온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나아온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내 말은, 그것이 우리가 일하는 이유입니다. 실제로 새로 믿는 사람들 중 일부는 주님에 대한 열심이 있지만 반드시 많은 것을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주님에 대한 열심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련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시험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숙해진다.

하지만 그들이 아주 어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거나 죽어도 그들이 우리의 형제자매라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은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 중 누구도 다른 사람을 무시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의 형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의 의미입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여전히 가장 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왕국을 세우실 것이고 그들은 그 왕국에서 그들의 자리를 원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고통받는 메시아를 따를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마가는 야고보와 요한이 왕국에서 예수님의 양쪽 편에 있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Matthew는 우리에게 추가적인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자인 마태에게서 나온 것이라면 아마도 그 자신의 기억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우리에게 추가적인 세부점을 알려 줍니다. 나이든 여성들은 도망칠 수 없었다. 나이든 여성은 남성이 할 수 없는 요청을 해도 도망갈 수 있었고, 때로는 젊은 여성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관과 함께 있는 과부를 기억하십니까? 아니면 구약성서에서 요압이 다윗에게 지적하고 싶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그는 나이 많고 지혜로운 여인을 다윗에게로 들어오게 합니다.

혹은 어느 마을의 지혜로운 나이 많은 여인이 요압과 합의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여성들은 남성들이 종종 자신을 사회의 라이벌로 여겼던 일들에도 불구하고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들아, 이 여자가 말할 만큼 대담하다면, 그녀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자.

이 여인은 자기 아들들을 대신하여 간청합니다. 그들은 엄마에게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들은 당신이 당신의 왕국에 들어올 때 당신의 양쪽에 자리를 잡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의 좋은 추종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그래서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내가 세례를 받는 세례를 받을 수도 있는데, 이는 아마도 누가복음 12장에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한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받을 세례가 있는데 이루기까지 내가 얼마나 고민하겠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불의 세례를 받으실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심판을 받으실 것입니다.

글쎄요, 마태는 단지 잔에만 초점을 맞췄습니다. 이는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는 우리에게 세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모든 맥락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에게 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는 맥락을 제공합니다. 내 컵으로 마실 수 있나요? 아, 네 컵으로 마실 수 있어요.

그들은 그의 컵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26장에서는 그들에게 잔을 주시며 돌리십니다. 이것은 내 피에 담긴 언약의 잔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는 값비싼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겐세마네에서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 잔이 나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그 잔은 그의 고통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가장 크게 승영될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의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곳은 어디였습니까? 27:38에 강도 둘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만약 그의 제자들이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랐더라면 아마도 그의 오른쪽과 왼쪽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이 이 시점에서 기꺼이 하려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강도들이 왕국에 들어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요점은 우리가 그들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또한 그들과 함께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를 드십니다. 그분은 지도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 앞서 어린아이의 예를 드셨습니다. 이제 그는 또 다른 종류의 예를 제시합니다.

그는 부정적인 예를 든다. 글썄요, 여러분은 이방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거 들어 봐.

너희는 이방인의 통치자들이 그들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알고 있느니라.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왕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큰 것은 가장 작은 것이다. 몇 년 전 제가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이웃이 있었는데 그 사람의 첫 남편이 그 사람을 구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는 그녀를 때렸고 결국 죽었습니다. 나중에 그녀는 재혼했는데 이 남자도 알코올 중독자였고 그녀를 때렸다. 그리고 그는 내가 그녀를 알게 된 시점에 그녀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겸손하고 기도하는 마음, 기쁨이 가득한 마음, 온전한 용서, 그리고 누구에게도 원한이 없는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녀의 존재에 겸손해졌습니다. 저는 박사과정 학생이었습니다.

나는 교수가 될 예정이었습니다. 나는 장관이었습니다. 그러나 왕국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이 실제로 무엇인지 아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위대한 대제사장 엘리가 있었고, 이 겸손한 여인 한나가 등장했습니다. 그녀는 순수하고 상한 마음으로 아이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하나님께 더 가까웠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알아내기 위해 이야기를 너무 많이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신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판단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큰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높은 지위를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높은 자리에 오르려면 높은 자리에 좋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겸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우리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중 누구도 자랑할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먼지와 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로 은혜롭게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든 다른 사람을 질투하지 맙시다. 감사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선택하신 것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가 우리를 많이 사용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는 그에게 공로를 인정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신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왕국에서 가장 큰 사람은 남을 섬기는 사람이다. 사람의 아들, 글썬요, 그는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28절에 보면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는 당신을 위해 죽으러 왔습니다. 나의 모범을 따르고 서로를 위해 여러분의 목숨을 내놓으십시오. 내 백성을 돌보고 너희 자신의 모범을 보여라.

예수님은 고난 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고통을 받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부터 6절까지, 11절과 12절에서 볼 수 있듯이.

다음으로 승리의 입장으로 이동합니다. 이에 대해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는 않겠지만, 승리의 입성은 예수님이 어떤 왕이신지를 정의합니다. 통치자와 로마 군인들은 실제로 많은 것을 감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당나귀를 빌려주거나 이것을 나에게 가져다 주거나 무엇이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고대 법률과 관습에 따른 그들의 권리 중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 제자를 앞서 보내시며 이 나귀를 빌려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주께서 그를 필요로 하신다고 말하라고 지시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주인이 집에 없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것이 주인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럴 가능성이 더 높지만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는 유월절 순례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분이 주님이심을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고위층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나사로의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은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고 계십니다. 그는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 예수님도 그들이 갈 집을 찾는 방법을 알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글쎄요, 남자가 물 주전자를 들고 있는 것을 볼 때, 보통 노예가 없다면 물 주전자를 들고 가는 것은 여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물 주전자를 들고 있다면 이는 매우 특이한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가서 그를 따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서 그 동물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 마태는 두 마리의 동물을 언급합니다.

그는 어미와 한 번도 떼어놓지 않은 새끼 새끼를 언급합니다. 글쎄요, 망아지를 데려가거나 심지어 어미와 별도로 갓 태어난 망아지와 함께 어미를 데려가는 것이 더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는 둘 다 가도록했습니다.

스가랴 9:9절의 표현은 두 동물에 대해 말하고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 실제로 평행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한 마리의 동물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유대인 교사들은 가치 있는 모든 내용에 대해 본문을 읽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서로 다른 평행선을 취하여 그로부터 서로 다른 것을 알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예수께서는 누구도 스가랴 9:9의 성취를 놓치지 않도록 두 가지를 다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예루살렘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제자들이 기대하는 그런 왕이 아니며, 군중이 기대하는 왕이 아닙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왕으로 오십니다.

이 구절은 메시아로 이해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언급하는 것으로 이해했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가랴 9:9에서는 당신의 왕이 온유하고 나귀를 타고 당신에게 온다는 이 구절을 인용합니다. 예수님은 종마를 타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승리한 군사 왕이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는 방식으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온유한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왕과 관련하여 Deidre Good이 지적한 것처럼 온유한 왕은 겸손하고 존경받지 못하는 왕이나 그와 유사한 왕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온유한 왕은 자비로운 왕, 친절한 왕, 낮은 자들을 사려 깊게 대하는 왕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온유한 자에게 복이 있으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십니다.

그는 친절하고 온화해요. 그분은 낮고 상한 자들에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교만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다지 인내심을 가지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자 군중이 그를 환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말로 그를 환영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십니다. 그 내용은 시편 118편에서 따온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십니다. 그리고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관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는 곧 그 내용을 인용할 것입니다. 그것은 같은 시편에서 나온 것입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것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눈에는 놀랍습니다.

이날은 주님이 정하신 날이다. 그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런 맥락에서 축하하는 날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날입니다.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가 할렐이었습니니다. 이것은 유월절과 다른 축제 기간 동안 불렀던 시편이었습니니다. 미쉬나, 페삭,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바로 이 계절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 사람들의 입술에 떠오른 말들이 바로 이런 종류의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군중 모두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모르지만, 들어오는 순례자들을 모두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례자는 특별한 환영을 받습니니다.

그런 다음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들어가셔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습니니다. 또는 일부 학자들은 정화라는 단어가 충분히 강력한 단어가 아니라고 말합니니다. 그는 성전에 대한 상징적인 심판 행위를 제시합니니다.

말라기는 주님께서 성전을 깨끗이 하신다고 말하지만, 구약의 성전은 이방인들을 이스라엘로부터 분리하지 않았습니니다. 물론 가장 안쪽 뜰은 여호와만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일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니다.

다음은 제사장들의 성소였습니다. 그곳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지만 바깥뜰은 모든 사람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8장에서는 솔로몬이 기도할 때 솔로몬도 기도합니니다.

이방인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들의 기도를 들으소서.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방인들도 바깥뜰에서 환영을 받았습니니다. 더 이상의 분열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헤롯 성전에서는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 사이에 정결에 대한 이해가 발전했기 때문에 그는 바깥뜰을 여러 개의 바깥뜰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의 순결 규정으로 인해 이 사원에는 다른 구분이 있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여전히 지성소, 즉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당신에게는 여전히 제사장의 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너머에는 이제 유대인 남자들만을 위한 이스라엘의 뜰이 있었습니다. 더 낮은 층과 외부에는 유대인 여성들만을 위한 여성의 뜰이 있었는데, 특히 매달 일주일 동안 여성은 남성보다 덜 순결한 것으로 간주되었고 언제 시작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유대인 남자들이 그들의 지역을 전혀 더럽히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바깥 더 낮은 층에는 이방인을 위한 뜰이 있었습니다. 매우 넓은 바깥뜰이었는데 이곳은 이방인들을 환영하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멋진 환영 표시가 이방인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이 지점을 넘으면 곧 일어날 죽음에 대한 책임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요세푸스는 이러한 징조를 언급합니다.

또한, 고고학자들은 아주 오래 전에 사원 근처를 발굴할 때 이러한 징후 중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우리 나라에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이 갈 수 없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나라의 특정 지역에 별도의 식수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라의 전부는 아닙니다. 나라의 특정 지역에는 백인들이 마실 수 있는 멋진 식수대와 흑인들이 마실 수 있는 작은 수도꼭지가 있을 것입니다. 별도의 화장실 시설과 모든 종류의 물건.

예수님의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불법이지만 예수님은 이런 종류의 분리를 좋게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이 분열에 도전하셨습니다.

이제 그가 환전상과 관련하여 이렇게 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현지 화폐로 바꿔야 했습니다. 각 도시마다 고유한 화폐가 있었습니다.

각 도시마다 고유한 통화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효율성과 구매 희생을 위해 표준화된 통화인 Tyrian stater로 변경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특히 디아스포라에서, 그러나 심지어 갈릴리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유대의 다른 곳에서도 여행하는 사람들이 소나 무엇인가를 가져오려면 다소 번거롭거나 심지어 비둘기나 뭐든 가져오곤 했습니다.

이걸 가지고 오려면 번거롭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들을 키우고 있었고, 성전에서 팔고 있었습니다. 그게 편리했어요.

그것은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시스템을 더욱 효율적으로 만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비교적 참신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된 이유는 또 있다.

그것은 바깥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곳은 이방인들을 환영하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이상적인 목적에 반하여 예배의 중심에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곳보다 덜 거룩하게 취급받는 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성전에서 상을 엮으시면서 두 가지 말씀을 외치셨습니다. 첫 번째는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문맥상, 내가 이방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리라.

내 집은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 국제적인 기도의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함이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그의 집이 모든 민족을 환영하도록 의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마태와 누가는 마가와는 달리 모든 민족을 가리키는 표현을 생략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문맥의 일부이지만, 마태와 누가는 아마도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신 이유에 대한 이러한 측면을 강조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내 생각엔 마가복음에서 그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인종 차별에 항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지 않는 한 평소에는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와 누가는 예수께서 암시하신 두 번째 구절을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2절에서 예수님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예레미야서 7장 1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문맥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부르짖고 있습니다. 성전, 성전, 주님의 성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전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당신은 이 죄를 짓고 저 죄를 짓는 데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이 모든 일을 우리가 마음껏 행하라 하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강도의 소굴로 보이느냐? 내가 실로에 행한 것 같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도 행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발굴 조사에 따르면 실로는 사무엘상에서 법궤를 빼앗겼을 때 멸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강도 굴은 강도들이 전리품을 자유롭게 보관하는 곳이었었습니다. 강도들이 공격을 당하지 않을 것처럼 안전하다고 느끼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이 집을 강도의 소굴 같게 만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은 죄를 짓고 이 집에 들어올 수 있고 이곳이 당신에게 안전한 곳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나는 심판을 내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서는 심판도 선포하십니다. 그분은 성전을 통과하시면서 성전에 있는 상들을 뒤엎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예레미야가 성전의 임박한 멸망을 상징하기 위해 성전에서 향아리를 깨뜨렸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예수께서는 훨씬 더 극적으로 냄비를 깨뜨리는 것 이상의 일을 하십니다. 그는 테이블을 뒤집고, 동물을 풀어주는 등의 일을 합니다. 외적인 종교만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동전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거스틴 시대에는 로마가 대체로 기독교인이 된 후, 또는 적어도 많은 사람들이 완전한 기독교인이 아닌 명목상 기독교인이 될 만큼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러나 어거스틴 시대에 로마는 야만인들에게 약탈당했습니다.

이런 일은 로마 역사상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참하느님을 숭배하지 않는 일부 사람들은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옛 신들을 버렸기 때문에 로마가 이 야만인들에게 멸망한 이유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야만인들 사이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어거스틴의 반응은 이러했다. 로마의 죄, 요한계시록 18장에서 읽은 내용을 암시하면, 로마의 죄는 세기를 거쳐 하늘 높이 쌓였습니다.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순종은 하나님의 심판을 멈추기에는 너무 천박했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심판을 멈추실 것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가 최악되게 살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 하나님을 위해 온전히 살지 못할 때, 심판이 임할 때 우리는 원망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적어도 우리 역사의 특정 기간 동안은 우리 나라에서도 사실일 수 있습니다. 살인하는 소작인(21장 33~44절)

이 비유는 가능할 때마다 실제 생활에 적용됩니다. 많은 세부 사항이 포도원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과 일치합니다. 울타리는 흔히 지어졌는데, 부분적으로는 동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느슨하게 맞춰진 돌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뒷마당에서 식량을 재배하고 동물을 쫓아내는 정원을 갖고 있지만 때로는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울타리는 적어도 더 큰 동물 중 일부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파수꾼은 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종종 그것은 수확기 동안 피난처로 사용되는 오두막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꼭대기에 서서 파수꾼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그것이 큰 포도원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강도가 될 수도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감시해야 할 것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차이점은 이것이 흔히 겪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약직 노동자는 아니지만 세입자에게 새로운 포도원을 임대하는 것입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 언어는 특히 이사야 5장에서 따왔습니다. 포도원은 이사야 5장 2절의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곳 포도원을 다스리는 소작인들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특히 사두개인의 제사장 귀족, 엘리트들입니다. 그리고 비유는 이 소작인들의 사악함을 강조합니다.

소규모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 즉 소규모 토지를 소유한 사람들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더 큰 토지에서 일하는 소작인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부동산에서 일하는 고객, 즉 토지 소유자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랍비들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들은 부동산에서 일하는 소작농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글썄, 일부 해석자들은 이것이 부당한 지주에 대한 농민 반란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고대 자료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위에 관계없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세입자와 동일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메신저를 죽입니다. 메신저를 죽이는 것은 항상 배신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이 죽임을 당하지 않겠다는 맹세를 한 뒤에도 죽임을 당했습니다. 유대인 혁명가들이 성전을 점령했을 때, 인접한 요새 안토니아에는 그곳에 로마 군인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수적으로 열세였습니다.

그들은 항복하면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복했을 때, 유대 혁명가들은 우리가 이교도들과의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그들에 대한 심판을 요구하자 그들은 그들을 학살했습니다.

요세푸스는 그것을 기록했고 모두가 그것이 더러운 행동이었다는 데 동의하기를 기대합니다. 그것은 매우 나쁜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은 매우 비열한 토지 소유자에게 너무 익숙해서 좋은 토지 소유자를 높이 평가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너무 자비로워서 거의 너무 착한 것처럼 보입니다. 내 말은, 일부 집주인은 세입자가 너무 많이 불평하면 고대의 일부 집주인은 실제로 그들을 암살하기 위해 암살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무 친절해서 거의 순진해 보이는 이 집주인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는 사자를 보내면 그들은 그들을 죽이고, 그는 더 많이 보낸다. 그리고는 아들을 보냅니다. 이제 그렇게 순진한 집주인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은혜로우셔서 현실주의의 굴레를 여기에서 깨뜨리시므로 사람들에게는 거의 순진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푸셨습니까? 우리에게 정말 불평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누구입니까? 내가 이전의 사람들을 선지자로 이해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아들은 그 모든 것의 정점입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공개적으로 메시아의 비밀을 밝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암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비유에서는 종종 아들이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등장합니다. 심지어 매우 유사한 이야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직 그것을 얻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확실히 그를 공개적으로 비난할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자기들이 부분적으로는 흰히 보이는 줄 알기 때문에 이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분적으로는 곤경에 빠지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 라고 말하다.

이것이 메시아적 비밀의 끝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분명히 심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고대의 모든 법률은 집주인의 편을 들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은 부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그가 부당하더라도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 성전의 이미지를 암시하는 시편 118편을 인용하셨습니다. 새 모퉁잇돌을 쌓는 건물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시편 118편의 문맥에서는 성전 축제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퉁잇돌의 이미지가 여기까지 이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약성경에서는 그런 식으로 여러 번 사용된 것 같습니다. 베드로전서, 로마서, 사도행전. 그래서 이 모퉁잇돌에 관한 예수의 가르침은 실제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의 추종자들은 계속해서 그것을 발전시키고 새로운 성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사해 두루마리에서도 그런 식으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경우에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잇돌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했듯이 할렐의 일부였습니다. 그것은 유월절과 매우 관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기간에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유대인 교사들도 게셀 하샤바(Gezer HaShavah)를 사용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공통 키워드를 기반으로 텍스트를 서로 연결합니다.

그는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잇돌, 즉 여기서 건축자들이 성전 설립의 지도자들임을 언급할 뿐 아니라, 다니엘 2:44의 쇠석도 언급합니다. 이 네 왕국이 있을 것이고, 이 왕국들, 이 세상 왕국들의 끝에는 하나님의 왕국이 큰 돌처럼 와서 다른 모든 왕국들을 부서뜨리고 다른 모든 왕국들을 대신할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부서질 것이다.

그리고 이사야 8장 15절과 28장 16절에도 걸림돌이 있습니다. 자기 위에 떨어지는 돌에 부서지거나 돌에 걸려 넘어지든지 그들은 곤경에 빠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심판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왕의 아들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비유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비슷한 이야기를 두 번 이상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런 짓을 하더군요. 당신은 다른 곳으로 여행합니다. 동일한 이야기를 전달할 수도 있고 다른 방식으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같은 이야기라면, 여기서 아들을 언급하는 것은 확실히 강조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른 이야기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예와 존엄성에 대한 고의적인 모욕입니다. 이제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사람들이 이중 초대를 받게 되므로 모욕이 분명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이미 초대받은 이들을 모두 부르라고 말합니다. 이중 초대를 받는 것은 고대 비즈니스 문서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관행이었습니다.

누군가 회신할 것입니다. 그들은 대답하고는 예, 내가 갑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이 준비되면 다시 사자를 보내어 '알겠습니다, 지금 오세요'라고 말했습니다.

두 번째 초대는 음식이 식지 않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두 번째 초청이 나가자 사람들이 변명을 합니다. 글쎄요, 제가 발을 샀거든요.

가서 봐야 해요. 정말 바보같네요. 발을 사기 전에 발을 살펴보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음, 나는 소 한 겨리를 샀습니다.

가서 시험해 봐야 해요. 아니요, 소의 멍에를 사기 전에 그렇게 하십시오. 글쎄, 난 방금 결혼했어요.

나는 올 수 없다. 보세요, 당신은 결혼할 때 미리 알고 있었죠. 그래서, 당신은 확실히 이것을 이중으로 예약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그들은 그 사람을 매우 직접적으로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음, 여기에는 고의적인 모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결혼식 참석은 사회적 의무였습니다.

후원자의 연회에 참석하는 것은 제국 전체에서 의무로 간주되었습니다. 잘못된 사람을 초대하거나 초대하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기를 거부하는 것은 모욕이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오도록 노력했습니다. 사실 고대에는 청첩장을 조롱하는 희극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 그래, 개도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능한 한 모든 사람을 데려오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을 존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결혼식에는 마을 전체가 초대되었습니다. 자, 여기는 왕의 아들을 위한 결혼식입니다.

확실히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었습니다. 오기를 거부하는 것은 모욕이었습니다. 왕의 경우에는 그의 명예를 모독하는 것이 반역죄이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의 친절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엄하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포도원의 비유에서처럼 여기에서도 살육하는 사자들이 있습니다. 메신저를 학살하는 것은 고대 도덕에 대한 위반이었습니다.

우리는 안토니아의 로마 수비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언급했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유대 전통은 선지자들의 순교를 강조해 왔습니다.

우리는 엘리야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이 순교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왕의 사자와 같은 선지자들은 최고 왕, 최고 하나님의 사자였습니다. 그들은 외교적 면책특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은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그것은 아시리아 왕의 사자를 죽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것은 전쟁을 선포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 시대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6장에 언급된 우리아도 순교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대 전통에서 훨씬 더 발전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사야는 나무에 숨어 있었는데 그들은 나무가 반으로 갈라진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히브리서 11장에서 그 전통을 언급했을 것입니다. 당신은 유대 전통에서 선지자들의 순교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문제에 대해 매우 민감했습니다. 아, 우리 조상들이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자들을 죽임으로써 그것을 다시 강조하십니다. 이것은 다시 사실주의를 넘어 확장됩니다. 음식이 식어가는 동안 왕이 군사 원정에 참여한다는 뜻입니까? 알다시피, 그것을 연회가 끝날 때까지 보관해 두는 것은 어떨까요? 그런데 매튜는 자신이 끝내고 싶은 부분으로 끝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먼저 해설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를 쫓아낸 자들, 반역죄를 범한 자들, 우리가 더 이상 당신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실제로 당신을 모욕하고 싶다고 선언한 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서막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이 불탔던 것처럼 그 도시도 불탔습니다.

교만한 자는 그를 배척할지라도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부르시느니라. 음, 명예와 수치의 문화에서는 원래 사람들을 오게 할 수 없더라도, 그들이 당신의 존엄성을 모욕했더라도 최소한 누군가를 오게 하여 음식이 낭비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면 적어도 명예는 좀 돌려받으세요. 외부인은 이방인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이스라엘의 낮은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비유가 끝날 것이라고 예상하는 곳에서는 계속됩니다. 마지막으로 연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잔치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이사야 26장을 기대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는 예녹 1장 등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국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는 이 종말론적 잔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준비도 되어 있지도 않고 거기에 속하지도 않은 채 잔치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는 교회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모독하고 죽음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우리 대부분은 함께 시작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다가 돌아서서 인내하지 않은 사람들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그 이후로 일부는 돌아왔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한 때 반드시 인내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혼인 예복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것은 이미 사용 중인 스토리라인이었습니다.

다른 유대인 교사들도 같은 이야기를 사용합니다. 이 사람은 부적절한 옷을 입고 들어옵니다. 많은 학자들은 그것이 더러워진 옷이 아니라 깨끗한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일을 할 때 옷을 입었다고 제안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은 왕을 진심으로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제자라고 공언하는 일부 사람들은 재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24장 45절부터 51절까지를 보십시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초림 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유다가 그 예이다. 그러나 이 종은 바깥 어두운 데로 던져지느니라.

왕들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던져 넣을 외부 어둠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은, 당신은 그들을 지하 감옥에 던질 수 있지만 외부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기 위해 비유의 현실성을 다시 확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엘리트들, 예루살렘의 엘리트들과 많은 갈등을 겪으십니다.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원들이 그에게 접근합니다. 그럼 당신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나요? 세금은 매우 인기가 없었습니다. 이는 거의 25년 전인 6년차에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그때 세포리스가 불타버렸습니다. 이를 위해 사용된 은 데나리온에는 아우구스투스를 신이라고 부르는 신성한 아우구스투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의 이름이 새겨진 형상이 들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것을 정말로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특히 이런 종류의 동전으로 세금을내는 것을 정말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혁명가로서 예수를 따를 수 있는 사람들, 많은 예루살렘 지도자들은 예수가 자신을 그렇게 인식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혁명가로 따르려는 사람들은 그가 '예, 폐지하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싶어합니다. 세금. 그러나 만일 그가 그렇게 말한다면, 명절을 맞아 도시로 들어오는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그를 고발할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루크에 따르면, 그가 말한 내용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실제로 그를 비난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동전 한 닢을 요구하셨는데, 흥미롭게도 질문자 중 한 사람이 그 동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구의 이미지와 제목이 그 위에 있습니까? 글썄, 모두가 카이사르를 알고 있습니다.

가이사란 것은 가이사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다시 말하지만, 돈의 상대적인 가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카이사르의 이미지가 있는 것을 카이사르에게 주는 것에 관해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당신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후 그는 부활 문제를 두고 사두개인들과 대결하게 됩니다.

이제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리새파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로 논쟁을 벌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으며, 랍비 문헌은 이에 관해 사두개인들과의 논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곱 명의 남편을 둔 과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글쎄, 그들은 그다지 창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외경인 토빗서에 나오는 사라의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사두개인들은 토라의 주장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들과 논쟁할 때 부활의 교리를 토라에서 찾으려고 했습니다. 다니엘 12장과 2절에 그것이 분명하게 나와 있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미 토라에서 이에 대한 힌트를 찾았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22장 3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논증은 사두개인들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논증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사두개파 신앙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역사적으로 유대 전통이었습니다. 비록 오늘날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믿지 않지만 말입니다. 바리새인과 고대 랍비인 미슈나와 헤드론(10:1)은 오늘날 유포되는 많은 견해를 높이 평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께서는 가이사와 그의 가이사들을 사두개인들에게 맡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기 때문에 오해가 크다고 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은 대중적인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드리는 일부 유대인 기도에서 부활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므로 오해가 크도다. 부활 때에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부활 때 누구와도 결혼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한 몸에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파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22:36. 그것은 이 기간에 바리새인 교사들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논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논쟁에 개입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본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다가간 사람은 예수님보다 늦은 사람인 랍비 아키바였습니다. Rabbi Akiba는 가장 큰 계명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 순위를 정하신 곳은 그곳이 아니었지만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두 번째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며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여기에 달려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한다면 토라에 있는 다른 모든 것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 중 처음 네 개 정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계명 중 어느 것도 어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선두인 십계명의 후반부에서는 인간의 말 계명 중 어느 하나도 어기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두 계명을 이렇게 연결하는 것은 둘 다 vayahavta(당신은 사랑을 보여줍니다)로 시작하기 때문에 유대교 원칙에 적합합니다. 그래서 다시 Gezer Shabbat에 의해 그것들을 연결하는 것이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비록 바리새인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토라를 이해하는 사람을 높이 평가하십니다. 22절 41절부터 46절까지에서 예수께서는 이제 상황을 바꾸시고 그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메시아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는 다윗의 아들입니까, 아니면 다윗의 주님입니까? 대중적으로 정의하자면 메시아는 기름부음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새로운 다윗, 즉 통치할 다윗의 자손에 대해 말했습니다.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이사야서, 아모스서 9장에 나오는데, 호세아서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다윗, 즉 다윗의 자손과 함께 다윗의 집이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 예언보다 훨씬 더 컸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시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본문은 제사장 겸 왕인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은 제사장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데, 히브리서는 1절을 인용한 후 이것을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 우편에 앉으라 하시니 그리고 이것 역시 신약 성경 곳곳에서 인용되고 암시되고 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예수 자신의 가르침을 널리 계승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누구십니까?” 히브리어로 주님은 야훼입니다. 그가 내 주께 여짜오되 만일 말씀하시는 이가 아니시면 내 주는 누구시니이까 나의 주님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시편인 다윗이 다윗에게 속해 있고, 다윗이 말하는 사람이라면, 이분은 다윗의 아들만이 아니라 다윗의 주님이십니다. 일반적으로 한 사람의 후손은 그 사람의 부하입니다.

예수께서는 안티몬을 사용할 수 있었고, 랍비들은 종종 그렇게 했습니다. 그분은 마태가 이 복음서에서 다른 곳에서 강조한 다윗의 후손임을 부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소 모호하게 표현되었기 때문에 후기 교회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다윗의 주요, 다윗보다 더 큰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과 다른 곳에서는 이것이 신적인 방식으로 설명되는데, 이는 또한 문맥에 부합할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Lord)와 하나님(God)은 구약성경에서 둘 다 신성한 칭호였습니다.

그리고 주님, 야훼와 아도나이 둘 다 그리스어로 쿠리오스로 번역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앞에 있는 언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예수께서 사두개인들과 논쟁하실 때 사용하신 언어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무덤 비문을 보면 사두개파 사람들은 그리스어를 자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어는 아람어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꽤 흔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 상황에서 그리스어를 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다윗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여기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셔서 그들을 나쁘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23장에 도달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23장에서, 그분은 그들에게 무엇이 잘못되었으며 왜 그들이 잘못되었는지를 보여 주시기 위해 전력을 다하십니다. 지금까지 복음을 통해 그의 가르침에 저항해 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이 외부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의 내부에 실제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에 대한 그의 가르침에서 Dr. Craig Keener입니다. 15회, 마태복음 19-22장입니다.